

9월 4일(월) / 읍22-24장

▶**내용요약:** 욥기 22장은 엘리바스의 세번째 변론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무익한 존재라고 하면서 욥의 죄악을 책망하고 하나님과 화목할 것을 권면한다. 23장은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으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의 작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기에 고난도 그 안에서 이해해야 함을 주장한다. 24장은 이어지는 욥의 답변으로 세상에서 악인은 불의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번영할 수 있음을 주장한다. 하지만 욥은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음을 확인한다.

▶**질문:** 다음은 누구의 고백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23장)

▶**생각하기:** 욥은 자신의 고난 가운데서 답답함을 호소한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뵈을 수 없구나”(23:8-9). 하지만 이런 답답함 가운데 그는 고백하기를, 고통으로 단련된 후에는 **순금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한다.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대장장이 하나님**을 만나자.

9월 7일(목) / 읍31-33장

▶**내용요약:** 31장은 욥이 자신의 순결함과 의로움을 강한 어조로 밝힌다. 성적 순결과 가난한 자들을 도운 구제를 나열한다. 32장은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과 이를 꺾지 못하는 세친구의 변론을 듣고 있던 엘리후가 분노하여 자신의 변론을 시작한다. 33장은 엘리후가 욥이 했던 말들을 예리하게 분석하여 비평하면서 욥이 자기 잘못을 깨달을 것을 촉구한다.

▶**질문:** 엘리후가 욥과 세친구의 대화를 들으며 자신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인가?(32장)

▶**생각하기:** 엘리후의 답변으로 새로운 논쟁이 시작된다. 그는 욥을 비판하면서 왜 하나님이 욥에게 고통을 주는지 답변할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33:12)고 한다. 엘리후의 말을 통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만 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려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 생각 속에 가두어서는 안될 것이다. **Great God!!!**

9월 10일(주일) / 읍40-42장

▶**내용요약:** 40장은 여러 동물들의 생태에 대해 물으신 하나님이 욥에게 그 대답을 촉구하신다. 욥은 침묵할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시작하신다. 이로 인해 욥은 하나님과 감히 대면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다. 41장은 리워야단에 대해 말씀하는데 그 강함과 위력을 표현하고 이와 대조적으로 인간은 나약하고 미련한 존재임을 보여주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강조된다. 42장은 욥기서의 마지막 장으로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시고

9월 5일(화) / 읍25-27장

▶**내용요약:** 25장은 빌닷의 세번째 변론으로 욥의 답변을 듣고는 그를 교만하다고 보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인간의 비천함에 대해 말한다. 26장은 욥의 답변으로 빌닷의 주장이 자신과 같이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되지 못하기에 무익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분임을 선포한다. 27장은 친구들에 대한 욥의 마지막 답변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악인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자신은 악인이 아님을 설명한다.

▶**질문:** 빌닷은 사람을 구더기와 같은 존재로 비유하면서 인생을 무엇에 비유하는가?(25장)

▶**생각하기:**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고백하기를, “나의 호홉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27:3)고 한다.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거리를 두지 않고 하나님을 친밀히 느끼고자 하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있는가?

9월 8일(금) / 읍34-36장

▶**내용요약:** 34장은 엘리후가 하나님의 공의와 그 심판에 대해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공의롭지 못하다고 말하는 욥을 꾸짖는다. 35장에서는 엘리후의 변론이 이어지는데 경건이 무익하며 기도 응답의 불확실성을 주장한 욥이 헛되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한다고 비판하면서 경건의 유익성을 주장한다. 36장은 엘리후가 욥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통해 하나님을 높일 것을 권면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36장)

▶**생각하기:** 엘리후는 변명하는 욥을 책망하면서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34:36)고 말한다. 엘리후가 아무리 하나님을 변호하면서 욥을 책망한다지만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을 향해 끝까지 시험받기를 원한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의 언어생활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심스럽게 말을 하자!!!**

이에 대해 욥은 회개한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뉘우친다. 하나님은 욥이 옳았다고 하시며 세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이 번제를 드릴 것을 명령하신다. 마지막으로 욥은 이전에 누렸던 것보다 더욱 많은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다.

▶**질문:** 욥기 41장은 리워야단에 대해 설명한다. 말씀에 보면 리워야단의 힘은 그것의 신체 부위 어디에 있다고 하는가?(41장)

9월 6일(수) / 읍28-30장

▶**내용요약:** 28장에서는 욥의 마지막 답변이 이어지는데 지혜와 명철의 가치를 보석에 비유하여 사람에게 그 지혜가 감추었음을 주장한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29장은 욥이 과거에 누리던 축복과 풍요로 인해 사람에게 존경받던 모습을 회고한다. 30장은 과거와는 달리 비참한 자리에 이른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면서 탄식한다. 특히 과거에 자신을 존경하던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고 비웃는 모습을 보며 안타깝게 생각한다.

▶**질문:** 괄호를 채우세요.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이 되었구나.”(30장)

▶**생각하기:** 욥은 여러 고통 중에 자신을 존경하거나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변한 처지로 인해 조롱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과 함께 분노한다. 심지어 그들이 자신의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렸다(30:15)고까지 표현한다. 이를 통해 우리가 **환난 날에 의지할 분은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임을 확인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오직 하나님!!!**

9월 9일(토) / 읍37-39장

▶**내용요약:** 37장은 엘리후의 마지막 변론을 기록한다. 그는 천둥, 번개, 눈, 비, 바람 같은 자연현상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고 그 분을 경외할 것을 강조한다. 38장은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서 욥에게 질문들을 던지며 그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게 하신다. 39장은 하나님이 여러 동물들을 직접 돌보신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욥의 부족함을 드러낸다.

▶**질문:** 다음에 나오는 **그것**은 무슨 동물을 가리키는가?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39장)

▶**생각하기:** 38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지속적으로 질문들을 던지면서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신다. 욥의 세 친구 역시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며 욥을 정죄했다는 점이 문제이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하고 있지는 않은가? 복음전도자로 살기 위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성서인이 되자!!!**

▶**생각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욥은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42:5)라고 한다. 욥도 의인으로 살았지만 그가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신 분이려 자신이 찾을 수 없는 존재로 생각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의 신음과 아픔 중에 그와 함께 하고 계셨고 이제 그를 직접 찾아와 위로하신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며 위로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기를!!!**